

순천 매안초, '우리가 만들어가는 매안버스킹' 공연 실시

학생중심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행사로 기획, 방과후 시간 활용 학생들은 흥겨운 노래와 춤·멋진 연주로 재기 넘치는 무대 완성

순천 매안초등학교는 4월 28일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매안버스킹을 운영하였다. 이날 행사는 총 6회로 계획된 월별 매안버스킹 중 처음 열리는 4월 공연으로 학생회 소속 특색누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야외무대를 꾸미고 다양한 소질과 끼를 가진 3-6학년 학생들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매안버스킹은 기존 학예회 틀을 벗어나 학생중심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코로나 19로 닫혀있던 학교 공간이 활짝 열리고 학생들은 흥겨운 노래와 춤, 멋

진 연주로 재기 넘치는 무대를 완성하였다. 또한 미술 교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전시버스킹 공간 조성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공연에 참가한 3학년 김00 학생은 공연을 위해 친구들과 두 달 동안 열심히 연습했다고 말하며 관객들이 큰소리로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어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버스킹 운영부로 참여한 6학년 이00 학생은 "버스킹을 위해 친구들과 모여

서 회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만족스럽고 특색누리 부원으로서 보람을 느꼈어요."라고 말했다. 흥현숙 교장 선생님(매안초)은 "열린 공간이라는 버스킹의 취지를 살린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며 소질을 발산시킬 수 있었다. 또한, 문화공연을 관람하는 학생들의 성숙한 자세도 함양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



라 학생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학생자치 행사에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교육청 Wee센터,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광양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4월 27일 광양 지역 Wee프로젝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으로 상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상담자와 학생 간의 따뜻하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통한 효과적인 상담에 초점을 맞춰, 선생님과의 일관성 있는 신뢰 경험이 학생의 행동 변화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애착 유형별로 학교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선생님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광양=김현근 기자

장성 분향초, 학생과 학부모 지역 사회가 함께 일구는 텃밭



장성 분향초등학교는 4월 27일에 교육공동체 함께 참여한 특별한 텃밭을 조성하였다. 재배할 작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흙을 고르고 밭을 조성하는 것까지 모든 교육공동체가 협의하고 참여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학생 자치회 학생들 투표 통해 함께 재배할 작물 결정

먼저 학생 자치회에서 학생 투표를 통해 함께 재배할 작물을 결정하였으며 각 학년에서는 학년 특성과 기호에 맞게 작물을 정하였다. 학생도 교사도 농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작물을 선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부모회와 지역 어른들의 도움과 조언으로 수월하게 해결하였다. 다음은 운영위원회가 나섰다. 굳어있던 땅을 갈고 고랑을 이어 텃밭의 틀을 조성해주었다. 참여한 백재호 운영위원장은 "아이들이 가꿀 텃밭이라 더 마음이 갑니다. 언제든지 도와야지요."라며 기꺼이 봉사해주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회와 학생들이 함께 밭이

랑을 돌우고 잡초 방지 비닐을 씌웠다. 흙을 고르고 비닐을 덮으며 서로 마주 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얼굴에 미소와 함께 땅방울이 맺혔다. 특히 아이들이 오며 가며 밟고 다닐 밭고랑에 흰 현수막을 깔아주는 모습을 통해 학부모회의 지혜와 세심한 손길을 볼 수 있었다. 텃밭 조성에 참여한 노효정 학부모회장은 "텃밭을 가꾸며 즐거워할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여했어요.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배움을 실천할 수 있다면 만족합니다." 6학년 김민아 학생은 "우리가 심은 옥수수 잘 자라도록 잘 돌봐줄 거예요."라고 다짐을 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신안 압해초, '지구지킴이 콘서트' 개최

신안 압해초등학교는 4월 28일 승룡관에서 샌드아트와 클래식이 들려주는 스위트뮤직가든의 '지구지킴이 콘서트'를 개최했다. 본교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압해동초등학교 학생까지 함께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직접 관람하며 공연문화를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지구지킴이 콘서트'는 클래식 음악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의 스토리를 재창작하여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기후변화로 자연과 동물들이 하나둘씩 지구를 떠나는 과정을 샌드아트로 보여주며, 떠도는 동물들의 마음의 소리를 클래식 '동물의 사육제' 재편곡 음악으로 들려주는 융·복합 예술 공연이다. 공연 중간에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함께 나누기도 했으며, 마지막에는 학생들과 함께 폐품으로 만든 악기로 피날레 곡을 연주하는 시간을 가져 학생들의 큰 참여를 이끌었다. 신안=이택주 기자

나주교육청, '차이나는 AI 코딩 캠프' 성료

유관기관 협력 중학교 자유학기제 코딩 프로그램 운영

나주교육지원청은 코딩교육의 선두 비영리 유관기관인 사피엔스4.0과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코딩교육인 '차이나는 AI 코딩 캠프'를 4월 25일 나주금천중학교를 시작으로 4월 28일 울림피아드대회를 끝으로 7개교 중학교 1학년 47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 리마무리하였다. '차이나는 AI코딩 캠프'는 KB은행 후원으로 규모가 큰 나주금천중학교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작은학교는 나주청소년수련관 일송정 대강당에서 운영하였다. 코딩캠프

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미션 수행을 목표로 총 6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사전교육으로 블록코딩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였고, 모뎀별로 레고 자동차 로봇을 만들고 자율주행 미션을 수행하였다. 마지막날(28일)엔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울림피아드 대회를 개최하여 나주금천중학교 1학년 김도하, 서민수 모뎀이 선정되었다. 그 외에도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입상한 모뎀과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12월에 수도권에서 전국 연합 코딩 캠프를 운영



할 예정이다. 나주교육지원청은 2023년 지역대학(한국에너지공과대, 호남대)과 비영리법인(사피엔스 4.0)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코딩교육, 빅데이터교육 등 나주지역 학생의 창의융합적 사고력 향상과 자신의 꿈을 당당히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SW·AI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주=송준표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